



최종구가 거절한 '혁신위 권고안' 다시 꺼낸 윤석현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 폭·풍·전·야



사진=연합뉴스

## 관료의 배짱 최종구

## 윤석현 민간의 고집

'근로자추천이사제' 놓고 시각차  
최종구 "유럽과 법체계 등 달라"  
윤석현 "의견수렴 공청회 추진"

(금융감독혁신과제 vs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

구분	금융감독혁신과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
발표	2018년 07월 09일	2017년 12월 20일
기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
키코사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지원방안 적극 마련	제조사로 상황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 마련
근로자추천이사제도	관련 공청회 개최 추진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관련 공시 강화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 후 도입 적극 검토
소비자보호강화	편면적 구속력 부여, 소비자 증명책임 전환 등	편면적 구속력 가지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제도 도입
불합리한 대출이자	모든 은행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 "가산금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들여다봐야"(Q&A)	가산금리 내용과 산출구조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키코(KIKO) 사태 재검토,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도입 논의, 가산금리 내용 공시'. 윤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로 발표한 내용이지만 새롭지 않다고 느낀 사람이 많다. 이미 반년 전에 제시됐던 내용이어서다. 윤 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으로 있던 당시 내놔던 최종권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의 최종권고안이 나온 다음날 바로 일부 안에 대해 (바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애둘러 표현한 바 있다.

윤 원장이 지난 5월 8일 취임 이후 두 달 만에 내놓은 금감원의 향후 청사진은 상당 부분 혁신위가 금융위에 권고했던 내용을 되풀이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혁신위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금융위에 권고하기 위해 출범했다. 윤 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돼 3

개월 여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혁신위의 논의 범위가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이었음을 감안하면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의견이 중복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금융위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던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금융위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은 정책을 놓고 시각차이를 보임에 따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현 금감원장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이번 금감원의 금융개혁 혁신안은 차관급인 금감원장이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게 정책을 제시한 셈이다. 마치 '동생'이 '형'에게 충

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금융당국은 금융위의 위임을 받아 금감원이 정책을 실행하는 모양새였지만 윤 원장 등판 이후 판이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혁신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적극 수용하겠다고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혁신위 권고안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최대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사실상 보류 방침을 밝혔던 대표적인 사안이 근로자추천이사제다.

최 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는 혁신위 권고안에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한 유럽과 우리나라는 법체계와 노사문화가 다르다"며

"(민간 금융사의 경우)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 원장은 이번에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제시했다. 경영이사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4분기를 목표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나 도입시 제도 내용, 도입 및 선임 사유 등 관련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와의 일견 불일치 논란을 의식해 서인지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직접

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더 들어보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이 저보다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조금 더 보수적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융위원장의 의견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키코 사태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이 다른 길을 걸었다.

최 위원장은 당시 키코 사태를 제조사 하라는 혁신위 권고에 대해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난 이런 시점에서 전면 제조사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금감원은 윤 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미 키코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달 25일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분쟁처리를 위해 피해기업 상담 및 사실관계 등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관료출신과 민간출신의 금융당국 수장 간 견해차이가 뚜렷하다"면서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금융당국 간 다른 목소리가 아쉽다"고 꼬집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금감원과 전쟁이라니... 금융권, 마루타 될까 '노심초사'

'윤석현 개혁안' 금융권 반응  
"금감원도 신뢰 하락에 일조" 비판

기대가 우려로 바뀌었다. 당초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윤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임명을 반겼던 금융권의 분위기가 두 달만에 뒤집혔다. 윤 원장 스스로 '전쟁'이라고 할 만큼 전방위 규제를 예고하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두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종합검사제의 부활을 비롯해 금리·수수료 등 가계체계부터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까지 금융 전반에 걸쳐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겠

다는 방침이 분명해지면서다. 먼저 금융사들에 대한 인식부터 부정적이다.

윤 원장은 전일 "우리 금융의 현실을 보면 담보대출 등 손쉬운 사업에 치중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됐고, 금융회사는 단기성과 중심의 경영과 폐쇄적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통제 등으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감독의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최근 금융권 사건·사고를 보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전쟁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당장 4분기부터 다시 시작될 종합검

사의 대상이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나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검사하겠다고 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 과거 2~3년 주기보다 더 자주 검사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며 "직접적으로 적폐라고 언급하진 않아도 금융회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 신규 사업이나 적극적인 행보보다는 당분간은 감독당국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모두들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금리, 수수료 등 가격결정체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도 사실상의 개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리, 수수료 등 가

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서비스 품질도 높아지고, 결국은 소비자에게도 이익으로 돌아간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금리자유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토로했다.

최근 불거진 금융권 사건, 사고를 감독당국의 책임은 없이 모두 금융사에 돌리는 것은 무리수란 비판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채용비리나 내부

통제 문제 등 최근 금융권 신뢰도 하락에 크게 일조한 것이 바로 금감원"이라며 "모든 책임과 원인을 금융사로 돌리는 감독 강화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이지만 유독 금융권에 대해선 규제 강화 카드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안상미 기자

## 네이버, AI 세계 최고수준 입증

OCR연구팀, 국제대회 세번째 1위

네이버의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와 인공지능 통번역 서비스 '파파고'의 공동 문자인식기술(OCR) 연구 팀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네이버는 국제패턴인식학회 'IAPR'이 시작한 국제 경진 대회인 'ICDAR 로바

스트 리딩 컴퍼티션'을 통해 올해만 세 가지 과제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회는 디지털 이미지와 비디오 상에서 텍스트를 감지·인식하는 기술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대회다.

문자인식기술은 크게 이미지에서 ▲문자의 위치를 찾는 '검출 기술'과 ▲문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인식 기술'로 나뉘는데, 특히 네이버의 문자 검출 기술이 알리

바바, 텐센트, 센스타임 등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들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우선 2017년에 공개된 다국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자 영역 검출에 대한 과제에서는 네이버가 73.68%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해당 기술은 영어를 포함한 라틴 계열의 문자뿐 아니라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벵골어, 특수 기호 등 총 7개의 문자영역을 검출하는 기술로, 단일 언어를 검출하는 것 보다 훨씬 고도화된 기술력이 요구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김태영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